2/8/26 [전도자 포럼]
주일2부 핵심 메시지 녹취

롬16:1-5
1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뵈뵈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들어가는 말씀

오늘 2부 예배를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전도자의 포럼이다. 모든 포럼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포럼이 되겠다.
1)포럼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기에 메시지와 비슷한 영적인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것 아닌가. 이 메시지가 중요한데 포럼은 메시지에 준하는 의미이다. 이번주부터 전도자 모임을 시작할것이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굉장한 의미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듣는 자들도 은혜가 되겠지만 하는 사람도 은혜가 될것이다. 사역을 하는 사람은 자주 느낄것이다 복음을 전할때마다 은혜를 주신다는것을 말이다.
2)포럼은 하나님께 드리는 현장 보고서이므로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모임은 하나님께 드리는 현장보고이기에 보좌앞에 모인 현장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될것이다.
3)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것이다. 전도에 대하여 관심있는 분들은 다와서 은혜받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되기를 바란다.

포럼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므로 메시지와 같은 영적 의미가 있다. 듣는 사람도 힘이 되지만 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잊고 있던 것이 깨달아지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포럼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현장 보고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보좌 앞에 모인 제자들이라 보아도 될 것이다. 의미에 걸맞는 응답이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1. 롬16장의 포럼-우리가 기도할때마다 이야기 한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야기를 한다.
1) 당시 최고의 현장 평신도 제자들 - 초대교회 사람들은 최고의 평신도 전도자들이었다. 결국 이분들때문에 로마가 살아났다고 보면 될것이다.
2) 로마를 살린 현장 목회자들 - 현장을 뛰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말로서 끝날것이다. 이분들은 현장목회자들이었다. 그리고 후세에 전도의 표본을 깔은 사람들이다.
3) 후세 전도자들의 표본-아주 중요하다. 이분들같이 전도하면 된다. 그게 대표적인 단어가 팀사역 전도인것이다. 팀이 되었다는것도 되지만 제자를 계속 세워가면서 팀을 만든다는것도 있다.

4) 전도 특공대-이분들이 진짜 전도 특공대이다. 너무나 핍박이 심하기에 비밀 결사대였다. 비밀 스럽게 안하면 발각되면 다 죽는다. 그런 의미에서도 아주 전도에 중요한 표본이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앞으로 미국, 남미에서 복음운동 해야 하는 중요한 참고되는 단어들이라 생각된다.

2. 전도자 - 우리가 다 전도자 되기를 원하고 롬16장 인물들이 다 전도자이다. 속으면 절대 안된다. 전도자가 만일절대 망대가 들어오면 성경처럼 인생이 되버린다. 그러니 결국은 작품 만들어 낸다 이말이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대단하거나 힘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 된다. 누구든지 할수 있는 일이다 물론 그 시기는 내 마음대로 하지못하다. 그러나 이일은 누구든지 육신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할 수있는 일이다.
1) 막3:13-16 소수 선택된 자, 우리가 잘아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고 먼저 이야기 했다 나가서 전도도 하는데 그냥 하는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고 하였다. 일단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소수였다. 그 소수였는데 소수만 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전도는 영적전쟁이기에 귀신을 꺾어야 하고 사람을 해방을 시키는것이다.
2) 능력을 부여 받은 자 – 귀신, 해방 - 현장을 가져본 자는 다 알겠지만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살아난다. 아주 틀림이 없다. 말씀을 안듣겠다고 버티고 사건이 일어나면 모르까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내가 말씀운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결단을 하시라. 문제에 들어가지 말고 말씀에 들어가면 된다. 물론 이런 부분에 잘하는 분도 과정인분도 있을것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겠지만 아직도 여기에 걸려 문제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말씀이 답이고 말씀으로 하기에 말씀운동이 답이다. 이 일을 진행하는 자 수행하는 자가 전도자이다.
3) 준비된 제자-이런 자들은 전부 준비된 제자의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20-30년 들었는데 아직도 말씀운동 하는 다락방을 못한다면 생각을 해보라. 한곳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보는것이다. 지금 팀사역 전도를 통해서 현장을 계속 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체험을 할것이다. 아주 어려운 육신적 문제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만 전하면 분명히 살아난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
4) 복음 전하는 자 – 그냥 복음 전하면 다 된다. 참중요한이유는 이것이 답이라서 그렇다. 그냥 눈 감고 복음만 계속 말하면된다. 여러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목요일날 모여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오히려 조용하게 현장에 문을 여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그런 분들하고 포럼을 하고 은혜받고 눈 열릴것이다. 전도 모임을 하는 이유가 있다.

3. 이유-교회에서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해야 한다. 이것이 밋션홈이나 지교회이다. 이때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전도에 관한 포럼을 하는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겠다.
1) 은혜 받고 치유되는 곳-당연히 은혜받고 치유될것이다. 마음, 생각, 몸, 인생치유가 될것이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장으로 들어가면 된다. 축복있기를 바란다.
2) 힘을 얻고 눈을 뜨는 곳 -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되어지는 것을 들으면 나는 부족한데 힘을 얻는다 듣고 있으면 눈이 열린다. 눈 안열리면 진도 안나간다. 그래서 자주 말씀과 접촉을 하는게 좋다. 눈은 말씀으로 열린다. 어느날 말씀이 들어와 깨달아지면 내가 눈이 열리는것이다. 눈이 열리면 그 열린것 만큼 내 응답이 올라간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리고 이

방법을 하나님은 절대 로 안바꾸신다 왜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는것이다. 이 모임은
3)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을 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곳 - 당연히 말씀을 주신다 나는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포럼현장이 아주 중요하다. 남전도에 제일 먼저 할것이 교회내에 말씀 포럼 팀을 만드는 것이다. 숫자가 많으면 점심시간에 다 못하기에 2-3명씩 할것이다. 그래서 남전도에 카톡방 만들어서 거기에 리더되는 사람이 포럼 내용을 카톡방에 올릴것이다. 여하간에 필요없고 말씀중심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에 들을때 저도 마음이 안편했다. 자꾸만 자기가 하는것을 강조하는것으로 느껴졌기에 그렇다. 그런데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그때 내게는 말씀이 지식이었다. 여하튼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된다. 많이 알고 있다가 중요한것이다. 그게 나쁜것은 아닌데 말씀성취를 체험을 못했기에 살아있는 말씀을 모르는것이다. 그러나 말씀성취와 증거를 보면 달라진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난 이후부터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다. 지금 와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복음을 모르면 이런 축복 안온다. 그러니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다 그리스도 3직 이거 몰라서 내게 말씀성취가 안되는것이다. 그런데 복음안에 들어와 있어도 말씀성취가 부족한 분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3직을 언약으로 잡고 메시지 들으면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말씀에 의하여 인도를 받으면 실패 안한다.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가 뒤집어 지면 된다. 문제가 뒤집어 지는 과정중에 있을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다. 우리는 그럴필요없이 언약을 진짜 잡고 말씀을 받는 시간이될것이다.
4) 교제와 하나 됨과 팀 사역 - 함께 해야 한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팀사역 전도가 되는것이다. 우리 팀들중 각팀의 리더들 낙심, 포기하지 말라. 언약잡고 그 팀에 대표가 되어 대표적으로 전쟁 붙어야 한다. 그리고 300%정신을 적용하면 틀림없다. 이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진짜 전쟁의 시작 정복의 시작이다.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4. 결론
1) 전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며 주님이 죽으심과 피흘리심의 이유이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가 안다. 예수님 전도때문에 죽으셨다 그 전도안에 나의 구원이 있다.그게 전도자이다. 하나님 눈에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가 알수 있다.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다 눌리 수 있기를 바란다. –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2) 하나님 눈에 가장 귀한 자가 복음 전하는 자다 이보다 더 귀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없다. 이 사람들이 진정하게 – 남은 자, 하나님께 남은 자들은 순례 할수 밖에 없다. 순례자 지속하면 , 정복자 된다. 때가 있다 낙심하지 말라 그때가 가장 좋은때이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것이다. – RT7명-때로는 참기가 힘들다 왜 그런지 이유를 못찾았는데 세월지나고 보니 내가 고칠게 꽉 찼더라. 내가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고쳐야 할것들이 많다. 문제가 온것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문제를 대하여야 한다. 복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버둥 치면 해결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것이다. 저는 과거에 처음 은혜받고 나서 조용기 목사메시지를 많이 들었다. 저는 마음속에 돈키호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무조건 된다고 하느냐? 왜 그렇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생하냐?... 세월이 지나가면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체험하면서 그 믿음이 쌓여지게 되었고 지금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조용기 목사님의 메시지는 성경적인 논리에 대하여 설명이 좀더 필요하지만 답은 맞다.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해서 나같은 경우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결론은 맞다. 그것을 내가

받아 들이기에, 성경은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 한것이 맞다. 내가 거기에 도달한것이 내게 쌓인게 부족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자꾸만 엉뚱하게 들리는것이다. 그리고 또, 저 순복음성도들이 약국으로 와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들이 느낌에 공중에 뜬것 같더라. 그런데 내가 그들말을 들으면서 반성이 되더라. 나는 앉아서 따지고만 있더라 왜그런지 ㅇ 따지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넘어가버렸다. 복음을 알고 난뒤에결론도 같아지고 영적으로 현장적으로 따지던것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다. 이제는 나 혼자서 생각해본다. 나는 결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하여도 답을 가지고 있다. 왜 그렇게 될 수있는 지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 그게 언약이 되어 답을 가진자가 되는것이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게 많이 있지만 류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진짜로 답났다는 생각이 든다. 그 출발이 어디였냐니까 복음을 바로 아는것이다. 간증을 잘 들어보라 어느날 창3:15절을 알게 되었다고 그거 알고 난 뒤에 즉시로 생각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응답을 못 받고 전도를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야 한다 즉시로 들어왔다고 간증하시더라. 우리는 들어서 교육받고 눌리고 그러다가 조금 깨달았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한테 창3:15절 언약을 깨닫게 하신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 어릴때 부터 류목사님의 고민은 뭔가 왜 교회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고 병이 많이 들고 교회는 왜 전도가 안되나? 평소에 어릴때 가졌던 생각이었다, 지금은 다 응답이 되었는데 그 출발이 차아3:15절에 눈을 뜬날이 시작이라고 하신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 복음을 몰라서 응답을 못받고 있구나 당연히 전도도 그렇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알아야지... 우리는 이 축복안으로 들어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모두가 원조가 되어야 하는데 배우느라고 20-30년 걸리고 있다.
3) 세계복음화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 되고 팀이 되도록 나를 죽여야 한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팀이 안된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짐나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정말로 전도자 되어야 하다.
그래서 교회도 살리고 내 인생도 살리고 해야 한다. 어려운일이 많이 있어도 그런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교회도, 어느 시대나 개인도 다 어려움 있었다. 완전히 문제 없는 시대는 없었다. 문제가 항상 축복의 과정이 고 출발이었다. 개인이 먼저 문제로 부터 해방되고 정복한것이 쌓여서 결국 미국 남미 복음화 하는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기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절대 망대 이루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생정복하게 하셔서 우리도 요셉, 모세처럼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 ,바울처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